

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해 🍷

한때 미국 오페라계의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.

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 받는 대화를 살며시 엿듣게 되었습니다.

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
"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 아신다" 하고 자랑을 하니까,

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
"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"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.
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서재로 들어가 실컷 울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.

나는 요즈음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.

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, 주위에 좋은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 한분 때문에 늘 흡족해 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영적인 사람입니다.

모세는 하나님 한분만을 믿고 돈도 없이, 무기도 없이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.

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드뭅니다.
나는 어떤 사람입니까?

글/ 김원태 목사

☞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, 「새벽나라」제공
<http://isena.com/>